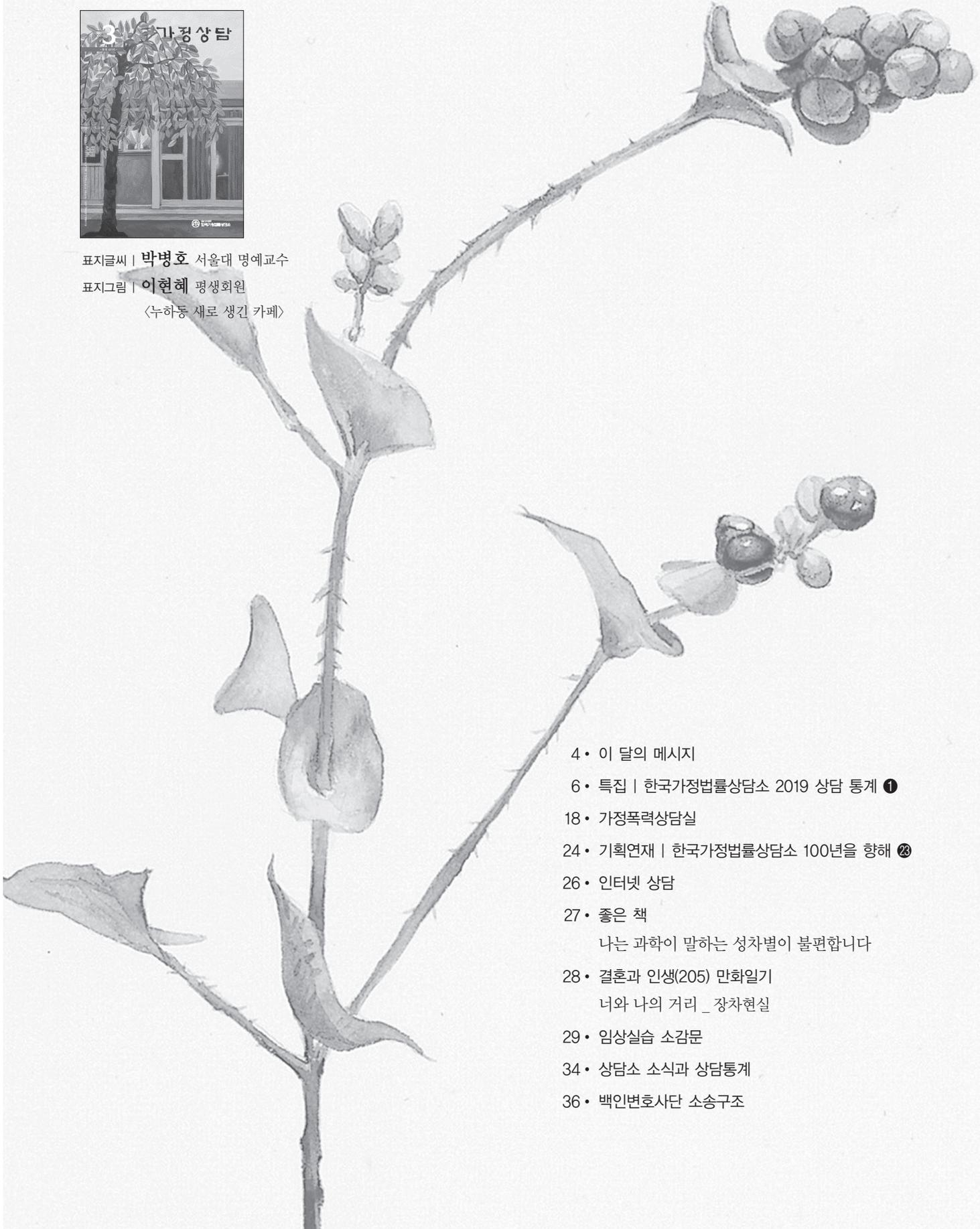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하동 새로 생긴 카페>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 상담 통계 ❶
- 18 • 가정폭력상담실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❷
- 26 • 인터넷 상담
- 27 • 좋은 책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 28 • 결혼과 인생(205) 만화일기
너와 나의 거리 _ 장차현실
- 29 • 임상실습 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염원하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상담소 창립 64년 만에 처음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확진자의 동선에 있던 곳들이 방역을 위한 휴점 상태에 들어가거나 각 직장들이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상담소의 출장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법원 민원실 또한 잠정적인 업무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각 법원마다 재판도 연기한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상담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내담자들이 찾는 상담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깊었습니다. 게다가 상담소 인근에 위치한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방문한 관계로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소식도 있고 관할구청에서도 권유가 있어 상담소 역사상 처음으로 면접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진행을 당분간 중단하고 전화 및 인터넷 상담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각계의 견해가 쏟아지고 있는데, 두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담소에서도 가정 내 종교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정 내 종교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부부 간 혹은 가족구성원 사이에 종교가 달라서 오는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지나친 종교생활의 몰입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마찰인데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정도의 종교생활이고 더 열심히 하지 못해 안타까울 수 있으나 상대방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종교에 대한 몰입이 너무 심하여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가 오는 경우입니다.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구하기 위한 종교생활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만큼 개인적인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만 보편적, 상식적으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고 물의를 빚는 정도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종교를 쟁점으로 하는 이러한 논란은 참으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조심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종교와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적인 권리와 국민과 국가 전반의 안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는 참으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진정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육천여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는 물론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고 마스크와 소독이 주된 화제인 오늘의 현실은 공포 이상의 피로감을 쌓이게 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와 공포가 쌓여가는 이 현실은 더욱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러스야 천재지변에 준하는 문제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감염예방의 최선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을 지키며 손을 잘 씻으라는 홍보는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에 대한 수급과 가격 문제조차 시의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한 발 늦게 대응에 나서는 정부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마스크 가격이 5, 6배씩 오

르고 그나마도 구하지 못해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몇주 째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말이 되어서야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니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스크 한 장이 정책의 실패라는 엄중한 사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난 메시지에 코로나 19와 관련한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더 확산된 지경에 이르러 올해 세 번째 메시지를 쓰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겨울의 마지막 비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른 봄비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비가 코로나 19같은 걱정거리를 모두 씻어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마다 개학이나 개강도 늦춰 지고 올해 졸업생들은 제대로 된 졸업식도 못 가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화훼농가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사회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어느 한 곳이 망가지면 많은 이들이 연달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하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때쯤에는 이 내용들이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거리낌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내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특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도 상담 통계 ①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 비율 가파르게 증가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43.5%로 가장 많아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150,306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76,826건, 전국 27개 지부 73,480건).

본부의 2019년도 상담 76,826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70,725건, 화해조정 4,544건, 소장 등 서류작성 1,064건, 소송구조 493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18,898건, 전화상담 55,634건, 인터넷상담 1,997건, 서신상담 10건, 지상상담 11건, 순회상담 276건이었다.

2019년 본부의 면접상담은 총 18,898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민사·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17,812건으로 면접상담의 94.2%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993건(5.3%), 형사사건이 93건(0.5%)이었다.

이혼상담 분석

총 4,783건,
여성내담자 3,435명(71.8%),
남성내담자 1,348명(28.2%)

상담소에서는 총 4,783건의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다. 이

중 여성내담자는 3,435명이었고, 남성내담자는 1,348명이었다.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 비율 가파르게 증가

60대 이상 여성 (99년 3.5%→09년 5.5%→19년 25.3%)
60대 이상 남성 (99년 4.8%→09년 12.5%→19년 43.5%)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6배, 남성은 3.5배 증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7.2배, 남성은 9.1배 증가)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60대 이상이 43.5%로 가장 많아

노년 남성 - “소외, 빈곤, 분노, 고통”

경제력 없어지자 가족, 사회로부터 무시, 소외, 고립
자녀집 가서 안 오는 아내 많아, 오랜 기간 사실상
이혼 상태

자녀도 아내 편 들고 찾아오지 않아
가정 내 소통 부재, 우울감, 불안감, 상실감 증가로
이어져

팬클럽, 집회 등 소통할 곳 밖에서 찾아
재산분할 원치 않아 이혼 대신 출혼

노년 여성 - “빈곤, 무시, 억압, 질병”

젊어서 돈 번다 유세한 남편, 늙어서까지 뒷바라지
 하기 싫어
 평생 남편, 자녀 뒷바라지에 내 인생 없어
 자녀도 능력 없고 무시당하는 엄마 싫어해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아픈 몸만 남아
 할 만큼 했으니 이혼하고 내 인생 찾고 싶어
 재산, 연금 분할 받기 위해 이혼 선택

전체 여성 이혼상담 사유

1위 기타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순)

2위 남편의 폭력

3위 남편의 외도

전체 남성 이혼상담 사유

1위 기타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위 아내의 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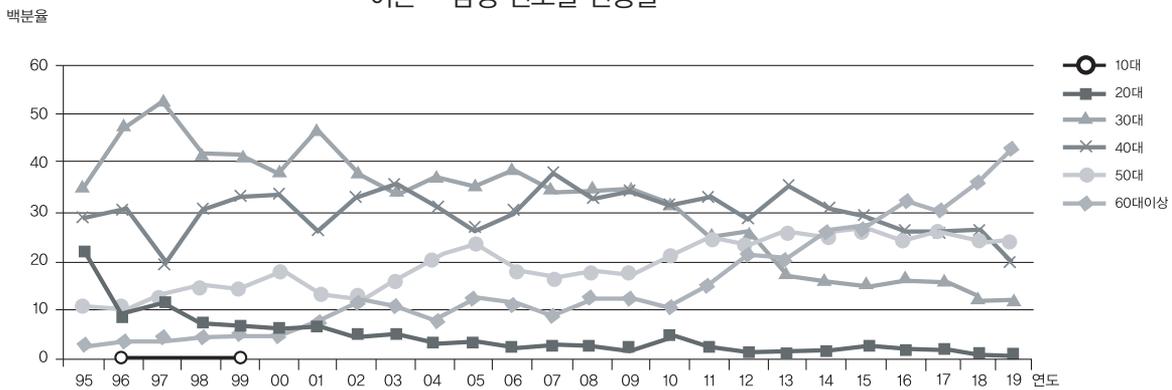
3위 아내의 외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3-4년 연상, 혼인기간은 7-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무직,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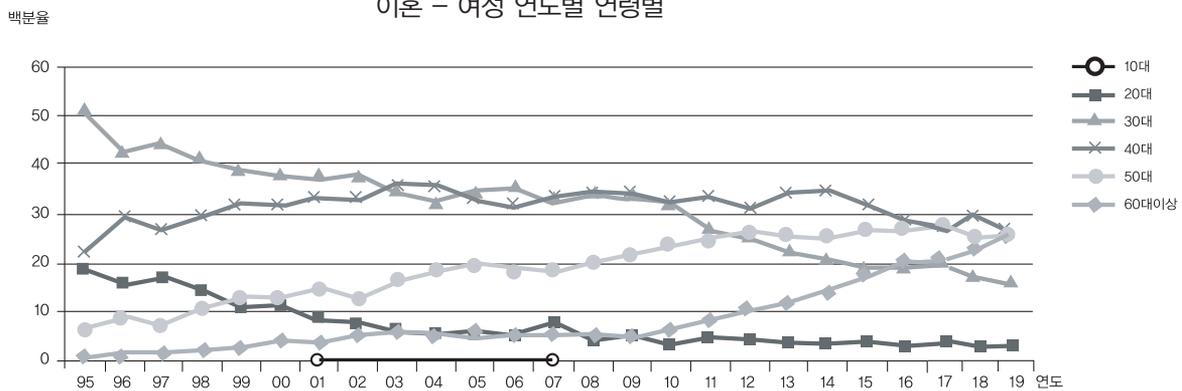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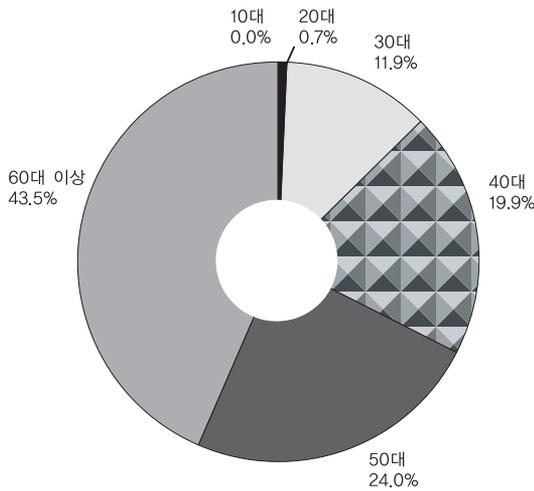
여성은 40대(956명, 27.8%), 50대(908명, 26.4%), 60대

이혼 - 남성 연도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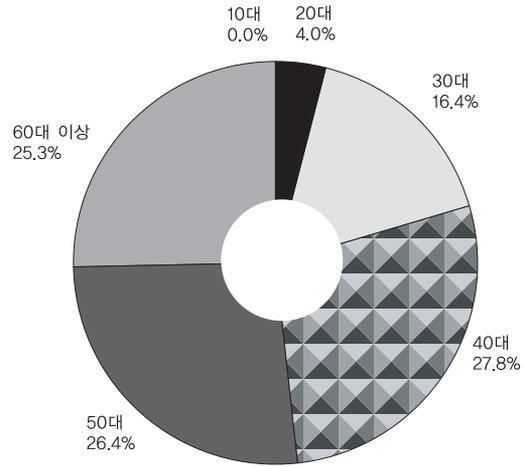


이혼 - 여성 연도별 연령별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 비율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 비율

이상(870명, 25.3%), 30대(562명, 16.4%), 20대(138명, 4.0%)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586명, 43.5%), 50대(324명, 24.0%), 40대(269명, 19.9%), 30대(160명, 11.9%), 20대(9명, 0.7%)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녀 모두 과거에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10년 전인 2009년 이후부터 30대는 감소하고 50대는 증가해 2013년에는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남성은 연령대가 더 높아져 2014년과 2015년에는 40대, 60대 이상,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는 60대 이상이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1순위로 올라섰고, 2019년에는 60대 이상이 43.5%를 기록하였다. 여성은 2017년에 50대가 1순위로 올라섰다가 2018년부터는 다시 40대가 1순위를 차지하였으나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9년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2009년 5.5%, 2010년 7.0%, 2011년 9.2%, 2012년 11.4%, 2013년 12.4%, 2014년 14.8%, 2015년 18.1%, 2016년 20.7%, 2017년 21.1%, 2018년 23.5%, 2019년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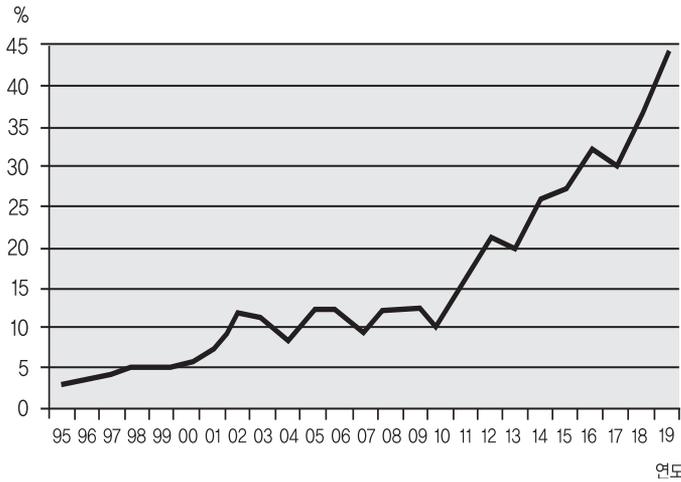
● 남성 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88세 / 상대자 여성 80세)

혼인한 지 60년이 지났다. 살면서 아내와 잘 맞지 않아 자주 다투었다. 15년 전에도 사소한 일로 다투다 내가 화가 나서 아내를 폭행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다.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처음에는 큰딸 집에 있었는데 현재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자녀들과도 연락 없이 지낸 지 오래되었다. 이혼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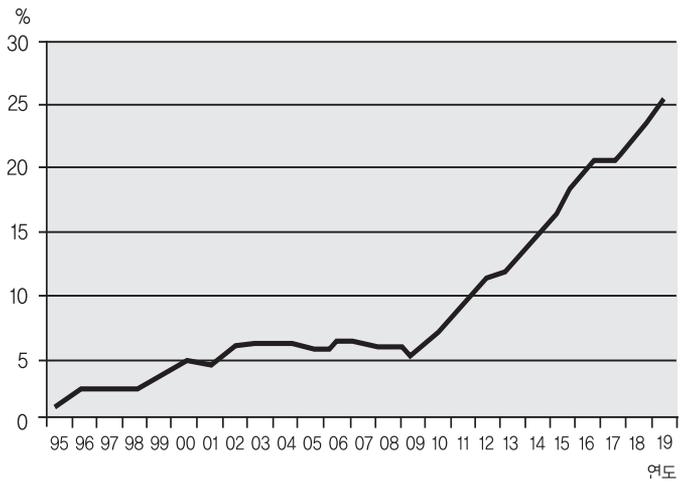
● 여성 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84세 / 상대자 남성 85세)

24세에 혼인해 지금까지 60년 살았다. 아들만 둘 있다. 배운 것이 없어 평생 장사해 먹고 살았다. 남편은 혼인 초부터 결핍하면 주먹질을 해냈는데 지금도 그러다. 집을 남편 앞으로 해냈고, 월세가 5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돈을 쥐고 아직도 유세다. 남편이 돈을 쥐고 있으니 내가 폭행을 당해도 아들들도 남편에게 뭐라 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고 싶다.

연도별 60대 이상 남성 이혼상담 비율



연도별 60대 이상 여성 이혼상담 비율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435건)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폭언, 알콜중독, 빚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43.1%, 1,479건)
- 2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3호)(31.9%, 1,095건)
- 3위 '남편의 외도' (1호)(13.3%, 457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348건)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폭언, 성적갈등 등이 우선 순위임)' (6호)(64.5%, 870건)
- 2위 '아내의 가출' (2호)(15.8%, 213건)
- 3위 '아내의 외도' (1호)(10.5%, 142건)

여성의 경우 여전히 폭력, 외도가 많아
남성의 경우 장기별거, 아내의 가출 많아

기타사유 항목을 묶지 않고 단일 사유만 고려하면 여성은 '남편의 부당대우(폭력)'가 1,095건으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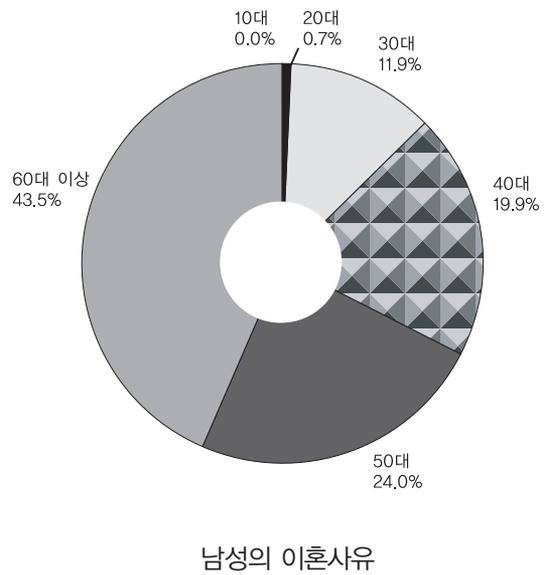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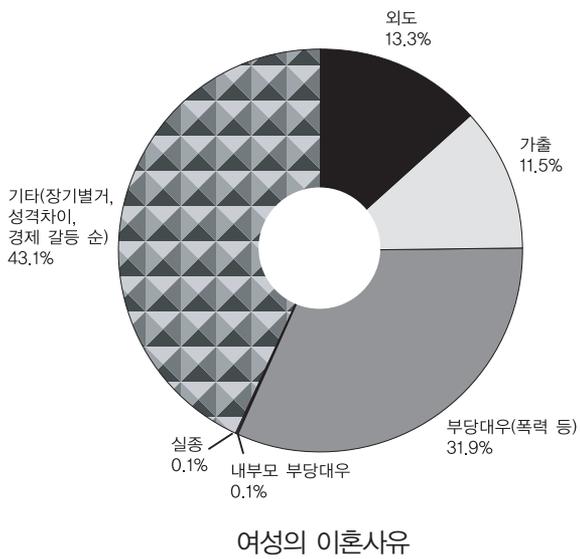
다음은 '남편의 외도' 457건, '장기별거' 423건 순이었다. 여성의 전체 이혼상담 중 31.9%(1,095건)가 남편의 폭력을 호소해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98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공권력이 가정 내 폭력에 개입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처벌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남편의 아내 폭력은 줄지 않아 여성과 자녀들이 고통 받고 있다.

남성은 '장기별거'가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내의 가출' 213건, '성격차이' 161건 순이었다. 아내의 가출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전체의 15.8%에 달했는데 아내가 외도나 빚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 잠적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담을 통해 보면,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력이 먼저 있고, 아내가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경우도 있었다.

남녀 모두 1순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으로 상담 많아

남녀 모두 1순위로 나타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479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28.6%(42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3.3%(197건), ‘경제갈등’ 9.1%(134건), ‘생활무능력’ 4.8%(71건), ‘폭언’ 4.6%(68건), ‘알콜중독’ 4.3%(63건), ‘빛’ 3.2%(4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도 6호사유(총 870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42.5%(3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8.5%(161건), ‘경제갈등’ 7.5%(65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5.9%(51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2.4%(21건), ‘폭언’ 2.1%(18건), ‘성적갈등’ 2.0%(17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여성 28.6%, 남성 42.5%), ‘성격차이’ (여성 13.3%, 18.5%), ‘경제갈등’ (여성 9.1%, 남성 7.5%)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수십 년 씩 연락 끊은 채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는 경우 많아

장기별거 비율,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5.5배, 남성은 5.8배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장기별거’의 비율은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여성은 5.5배, 남성은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여성 5.2%, 남성 7.3%). 이들은 이미 수년에서 수십 년 씩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을 끊은 채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임대주택, 사회보장수급 신청 등 일정한 지원을 원하나 서류상 배우자의 존재로 청구가 어려워 서둘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 남편의 폭행 및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50대 여성)

혼인 초부터 폭행이 계속되었으나 아이가 어려 참고 지냈다. 그러다 11년 전 남편이 갑자기 당시 초등학교이던 아들을 폭행했다. 내가 남편을 말리자 그때부터는 나를 폭행했다. 옷가지만 챙겨 아들과 급히 친정으로 도망왔다. 며칠 지난 후 들어갔는데 남편이 또다시 폭행을 하여 집을 나왔고 별거하게 되었다. 별거 후 처음에는 남편이 양육비를 조금씩 보내왔는데 방학을 하자 그나마도 끊었다. 형제들 도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염치가 없어 받지 못하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언제 나가야 할지 몰라 임대아파트라도 분양받고 싶은데 남편이 있어 받지 못한다. 이혼하고 싶다.

● 아내의 가출 및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60대 남성)

32년 전쯤 아내가 가출하여 따로 지낸 지 오래다. 그 사이 아들은 아내가 혼자 맡아 키웠다. 현재 형편이 어려워 기초수급지정이 필요한데 배우자가 있는 것 때문에 제약이 있어 그마저도 신청을 못하고 있다. 아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고 연락처도 모른다. 사는 것이 막막하여 이혼하고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아내와는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다. 이혼하는 방법은?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 주장하는 이들 많아
유책성 없어 재판 이혼 진행하기도 어려워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상담을 한 경우가 많았다(여성 13.3%, 남성 18.5%). 성격차이는 6호사유 중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사유이다. 내담자들은 혼인 초부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해왔다.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를 입증하기 어려워 재판 이혼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여성)

임신을 하여 남편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급하게 혼인하게 되었다. 혼인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무시하는 말투에 나는 남편의 발소리만 들어도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불안을 느꼈다. 남편과는 경제관념도 달랐는데 특히 남편은 돈을 매우 아끼는 사람이어서 이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 남편은 심지어 제왕절개 비용도 아끼워했다. 남편의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나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었다. 얼마 전에도 사소한 일로 다투는데 내가 사과하지 않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왔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매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나도 이혼을 원한다.

●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30대 남성)

나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혼인 전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 회사를 그만둔 것이고, 이는 결혼 전에 아내와 충분히 상의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자 아내는 빨리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서 모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내게 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다. 아내와 애초부터 성격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불안정한 직업, 흔들리고 위태로운 가정 경제로
갈등 증폭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 주장하는 이들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을 문제 삼아 이혼 상담을 한 경우가 많았다(여성 9.1%, 남성 7.5%). 경제갈등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높은 비율을 보이는 이혼 사유이다. 맞벌이를 하면서 서로 소득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투자 역시 상의 없이 진행하다 큰 빚을 지게 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또한, 단순노무, 배달, 대리운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직업과 경험 없는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그 위기가 그대로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혼인 후 남편은 제대로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은 수 차례 회사를 차렸다가 정리하곤 하였고 시작할 때는 늘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런 적이 없다. 그로 인해 경제적 갈등이 많았다. 작년에 남편은 일을 하러 간다 한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왔는데 나도 이혼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고 이혼 후 생활이 걱정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살던 집을 팔아 상가를 구입하였다. 내가 젊어서 사업하다가 빚을 진 적이 있는데 그 이유로 그 상가를 아내가 모두 관리하고 있다.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아내는 자신이 거의 다 쓰고 내게는 아주 적은 액수만 주고 있다. 현재 아내 명의로 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서 집을 놔두고도 모텔 등을 전전하고 있다. 이혼하고 내 몫을 받고 싶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18년 → 2019년)

여성			남성		
사유	2018년(%)	2019년(%)	사유	2018년(%)	2019년(%)
생활무능력	3.8	4.8	불신	0.9	1.6
도박	2.3	2.9	경제갈등	7.1	7.5
전과/복역	0.7	1.2	불성실한 생활	0.1	0.6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1.2	1.4	사치/낭비/허영	0.2	0.6
종교갈등	0.1	0.3	종교갈등	0.7	0.9
성적갈등	0.7	0.9	성적갈등	0.5	2.0
정신병	1.1	2.0	의부증	0.2	0.9
마마보이	0.1	0.2	폭언	1.8	2.1
알콜중독	3.7	4.3	기물파손	0.1	0.2
무시/모욕	0.8	2.6	장기별거	34.8	42.5
기물파손	0.2	0.4	애정상실	0.9	1.0
찾은 가출	0.1	0.3	대화단절	0.1	0.2
찾은 외박	0.3	0.7	시가와의 갈등	0.4	0.8
장기별거	20.5	28.6	전혼자녀와의 갈등	0.0	0.1
시가와의 갈등	1.7	2.2	배우자의 이혼강요	5.5	5.9
처가와의 갈등	0.1	0.3	성격파탄	0.0	0.3
전혼자녀와의 갈등	0.0	0.1			
배우자의 이혼강요	2.9	3.1			
고부갈등	0.2	0.3			
중독증	0.0	0.6			
자녀양육갈등	0.3	0.5			
가사분담갈등	0.0	0.1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노년 이혼상담 분석

이혼상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분석 첫 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1.2%, 남성 2.8%로 매우 낮았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해 20년 전인 1999년에는 여성 3.5%, 남성 4.8%, 10년 전인 2009년에는 여성 5.5%, 남성 12.5%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5.3%, 남성 43.5%를 기록하였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6배, 남성은 3.5배,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7.2배, 남성은 9.1배 증가하였다.

2019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870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630명, 70대는 217명, 80대 이상은 23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586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317명, 70대는 230명, 80대 이상은 39명이었다.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 88세, 여성 86세였다.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폭언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남편의 가출) 순, 7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1호(남편의 외도), 3호(남편의 폭력) 순, 80대는 6호(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경제갈등·알콜중독 순), 2호(남편의 가출), 3호(남편의 폭력) 순이었다.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여 성	남 성
1995년	41명(1.2%)	15명(2.8%)
1996년	91명(2.4%)	22명(3.6%)
1997년	96명(2.5%)	25명(4.0%)
1998년	123명(2.7%)	35명(4.6%)
1999년	156명(3.5%)	36명(4.8%)
2000년	237명(4.9%)	41명(5.2%)
2001년	203명(4.5%)	48명(7.7%)
2002년	223명(5.8%)	73명(11.6%)
2003년	212명(6.2%)	60명(10.7%)
2004년	205명(6.2%)	45명(8.4%)
2005년	179명(5.8%)	53명(12.5%)
2006년	211명(6.1%)	60명(11.4%)
2007년	216명(6.0%)	68명(9.0%)
2008년	209명(5.8%)	70명(12.4%)
2009년	213명(5.5%)	79명(12.5%)
2010년	254명(7.0%)	57명(10.5%)
2011년	402명(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2017년	818명(21.1%)	409명(30.4%)
2018년	774명(23.5%)	495명(36.3%)
2019년	870명(25.3%)	586명(43.5%)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폭언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등 부당대우)
70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1호(남편의 외도)	2호(아내의 가출)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1호(아내의 외도)
80대 이상	6호(기타-성격차이, 장기별거, 경제갈등·알콜중독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경제갈등 순)
	2호(남편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3호(남편의 폭력 등 부당대우)	2호(아내의 가출)

남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순, 7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 8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경제갈등 순), 1호(아내의 외도), 2호(아내의 가출) 순이었다.

남녀 모두 60대, 70대, 80대에서 1순위로 6호사유를 제시하였고,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와 성격차이가 많았다. 다음 순위로 여성 60대는 남편의 폭력, 남편의 가출, 70대는 남편의 외도, 남편의 폭력, 80대는 남편의 가출, 남편의 폭력을 꼽았다. 남성 60대는 아내의 가출, 아내의 폭력, 70대는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80대는 아내의 외도, 아내의 가출을 꼽았다.

노년 여성, 나이 들어서까지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하기 싫어

재산, 연금 분할 받고 내 인생 찾고 싶어

노년 남성, 아내와 자녀로부터 소외당해

팬클럽, 집회 등 소통할 곳 밖에서 찾아

노년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며 쉬지 않고 살아왔으나 남은 것은 병든 몸과 빈곤밖에 없다고 호소해왔다. 젊어서 돈 번다고 유세한 남편이 노년에도 재산을 가지고 통제해 숨이 막히고, 자녀들 또한 육아나 살림을 도와줄 때만 엄마를 찾고 능력 없고 재산 없는 엄마는 찾지도 않아 자괴감이 든다고 하였다. 그동안 자녀와 남편을 위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다고 하였다.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자신이 번 재산이라며 협의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서라도 내 몫의 재산과 연금을 분할 받고 싶다고 상담소를 찾았다.

한편, 노년 남성들은 경제력이 없어지자 가족과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되어 고립감을 느낀다고 호소해왔다. 이들은 아내가 다 큰 자녀들 뒷바라지는 계속하면서도 자

신의 끼니는 챙기지 않고, 손자를 봐준다면 자녀 집에 가서 몇 달씩 오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자녀들도 엄마 편만 들고 돈 없는 아버지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한다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해왔다.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과 모임을 갖게 되고 모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팬클럽과 집회 참석 등 집단 행동에도 쉽게 휩쓸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혼도 고려하나 그럴 경우 본인이 젊어서 벌여 놓은 재산을 아내에게 분할해줘야 한다고 해서 줄혼을 차선책으로 문의해 오기도 하였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다. 처음부터 성격이 맞지 않아 힘들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혼인 기간 내내 음주문제도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음주량이 더욱 늘어나 매일 소주 5병씩 마시고 있다. 최근에는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자녀들이 정신과 치료를 권했으나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한다. 내 명의로 작은 빌라 한 채가 있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올 수도 있어 걱정이 된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아내가 사치를 하다가 돈 문제가 생기면 집을 나가는 일이 많았다. 10년 전에는 집을 나가 내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었다. 나는 자녀들이 아직 어렸기에 가정을 지키고 싶어 상가를 공동으로 해 주고 소취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내는 자주 집을 나갔고 얼마 전에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반씩 나누어 갖자고 주장을 해왔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한 후 건물을 매도해 나누려고 하는데 아내가 채무에 대한 공제 없이 무조건 매도 가액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3년 전부터 남편이 춤을 추러 다니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 살면서 남편에게 폭행도 많이 당했다.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여자들에게 돈을 몰 쓰듯 쓰고 다녀 그 문제로 다투던 중 내게 칼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나도 이혼할 의사는 있다. 그러나 각자 명의로 부동산이 한 채씩 있는데 이혼하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상대 여자에게 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5년 전 내가 은퇴한 후 아내가 계속해서 짜증을 냈다. 내가 아파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평생 나 혼자 경제 활동해서 집을 두 채 마련했고, 월세를 받고 있다. 그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아내는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보고 돈을 받아 혼자 다 사용하고 있다. 아내의 짜증을 견딜 수 없어 이혼하자고 했고, 아내도 이에 동의하였다. 아내가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데 나는 내 재산을 그만큼 분할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나는 80세, 남편은 82세이다. 원래도 남편과는 성격이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고 지냈다. 그런데 1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 때부터 폭력적으로 변했다. 올 봄에도 남편에게 심하게 맞았다. 나이 80이 넘어 성한 곳이 없는데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하니 도저히 살 수 없어 집을 나왔다. 남편에게는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싶다.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나는 87세, 아내는 82세이다. 오래 전 아는 사람에게 잠깐 돈을 빌려 줬던 적이 있다. 아내는 내가 어떤 여자에게 돈을 준 줄 알고 그 때부터 나를 의심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그 사실을 알렸고, 아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내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모두 아내 명의로 해 줬는데 집을 옮기면서 다시 공동명의로 했더니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아내가 1년 전 집을 나간 후 오지 않는다. 통장도 모두 아내 명의로서 이혼하고 돌려받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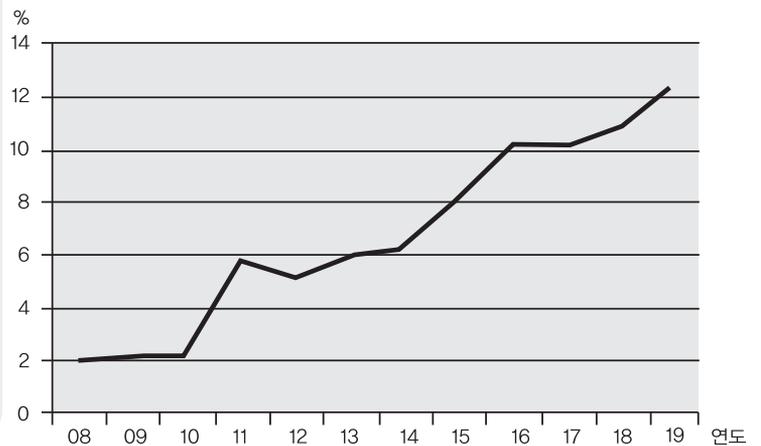
기타 면접상담 분석

유언·상속 상담

유언·상속 상담 비율 10년 전에 비해 6배 증가

유언·상속에 대한 상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면접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인 2009년에는 2.1%(184건)였으나 5년 전인 2014년에는 6.3%(1,010건),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8.1%(1,811건), 2016

연도별 유언상속 상담비율



년에는 10.1%(2,239건), 2017년에는 10.1%(2,007건), 2018년에는 10.9%(2,258건), 2019년에는 12.6%(2,381건)로 나타나 5년 전인 2014년보다 2배, 10년 전인 2009년보다 6배 증가하였다.

**부모 이혼에는 무관심, 재혼에는 초관심
불효자녀여도 부모 사망 후 유류분 청구해 갈등**

**오랜 기간 연락 끊은 부모·형제 빚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해**

재혼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경우 자녀와의 갈등 특히 상속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 비해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는 무관심한 반면 재혼에는 많이 관여를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재혼으로 인해 자녀들의 상속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갈등의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률혼 대신 사실혼을 택하거나 증여나 유언 등으로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 왔다.

부모 또는 형제와 갈등이 있어 오랜 기간 부모를 찾지 않은 자녀가 부 또는 모 사망 후 본인의 유류분을 청구해 남은 가족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부모의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어도 자녀는 부모 사망 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홀로 남게 된 부 또는 모는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겨 생활 근간이 흔들리기도 하였다.

다양한 이유로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 모, 자녀, 형제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문의해 오는 경우도 많았다. 내담자들은 망자의 채권자로부터 뒤늦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비로소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망자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망자의 재산을 한번에 구체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언·상속 상담사례 1 (내담자 60대 여성)

3년 전 남편과 이혼하였다. 얼마 전 모임에서 다른 남성을 만나 재혼을 고려 중이다. 내 앞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상대방도 지방에 땅이 있다. 3년 전 이혼하겠다고 할 때는 부모님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던 아들이 재혼하겠다고 하자 반대하고 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상속을 신경 쓰는 것 같다. 나도 재산 문제 때문에 혼인 신고가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재혼을 원하지만 내가 모은 재산은 아들에게만 주고 싶다.

● 유언·상속 상담사례 2 (내담자 60대 남성)

어머니가 올 초에 돌아가셨다. 내 위로 형이 있는데 어머니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몇 해 전부터는 아예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당신이 살던 아파트를 내게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는데 얼마 전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다. 나는 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 등을 함께 납부하면 지분을 이전하여 준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 유언·상속 상담사례 3 (내담자 40대 여성)

아버지가 2018년에 돌아가셨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는 왕래 없이 지내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특별히 사회생활을 했던 분이 아니어서 당시 별 다른 채무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왔다. 이에 혹 다른 빚은 더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민센터에 찾아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넘어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융기관마다 일일이 확인을 하러 다녀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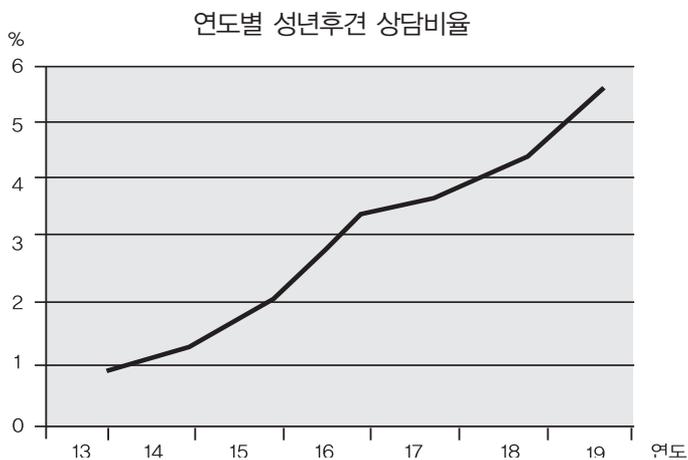
성년후견 상담

성년후견 상담 비율 5년 전에 비해 4.4배 증가
 성년후견 개시 후 계속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문의 많아
 은행, 보험회사, 병원 등 기관에서 안내 받고 오는
 경우 많아

2013년 첫 시행 후 6년이 지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상담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전체 면접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143건)였으나, 2014년에는 1.3%(211건), 2015년에는 2.1%(469건), 2016년에는 3.5%(763건), 2017년에는 3.8%(761건), 2018년에는 4.5%(935건), 2019년에는 5.7%(1,074건)로 나타나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4.4배나 비율이 증가하였다.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피후견인, 청구권자, 후견인 자격, 심판절차, 청구서 작성 방법 등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자체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후견사무 보고, 권한초과행위, 후견인 변경, 후견인 사임, 후견 종료 심판 청구 등 후견이 개시된 후 계속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였다.

또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보편화되면서부터는 은행, 보험회사, 병원 등 각 기관에서 성년후견에 대한 안내를 받고 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아졌



다. 한편, 사회복지 지원금이 증대되면서 질병,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형제의 수급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후견인 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 성년후견 상담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어머니는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기초수급비와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남동생이 모두 써버린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두면 남동생이 집에 모시고 간다. 수급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수급비가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 욕창까지 생겼는데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아 우리가 모시고 갔더니 병원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렸다. 딸들인 우리가 성년후견을 신청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 고민이다.

● 성년후견 상담사례 2 (내담자 70대 여성)

언니가 요양원에 있어 병원 업무를 내가 대신 해 주고 있었다. 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그런데 얼마 전 언니 통장에서 모든 돈이 인출되었다.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내가 언니의 후견인이 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은행에서 후견인 선임을 해 오라고 한다. 내가 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 성년후견 상담사례 3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과 재혼하였고 남편에게는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둔 아들 한 명이 있다. 그 아들이 32세인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새엄마인 내가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는데 사망한 친모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아들의 성년후견인을 아버지로 변경하는 방법은?

김진영 상담위원



행위자 상담



서로 폭행하여 상담 위탁되는 부부 증가 추세
 성격차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갈등 해결이 시작 돼

사건번호 2018버1***폭행/
 2018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자조모임 4회,
 부부 교육강좌 4회, 부부집단상담 8회 등
 총 31회 실시

상담기간

2018. 8. 16. ~ 2019. 2. 22.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남편은 전배우자와 자녀 셋을 두고 이혼한 후 조선족인 아내를 만나 재혼하였다. 재혼이면서 타문화권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문제 등이 부부갈등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2018년 5월 사건당일 남편이 근로자의 날에 출

근한 일로 말다툼 중 아내가 남편의 목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남편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남편이 이에 대항하여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앞 목을 잡아 조른 후 넘어진 아내를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하여 부부 모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부부는 사건 발생 후 수개월간 각 방을 쓰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다.

남편은 상담을 통하여 아내와 화해하고 노후를 잘 보내고 싶어 하였는데, 아내는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이 남편 탓이라고 하면서 상담에 거부감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지속된 개별상담을 통하여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다소 해소하였고 이후 진행된 상담을 통하여 의식개선 및 부부관계에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부부집단상담에서 첫 회기 내내 부부, 특히 아내는 남편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지속하였다. 남편은 전처소생 중 23살 된 막내딸이 몸이 약하고 아픈 것이 신경 쓰여 가끔 통화를 하였는데 아내는 자신 앞에서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이 무언가 속인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2회기 때 이들 부부는 전격 화해를 한 후 상담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화해를 하고 싶어도 그 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됨으로써 작은 행동 하나에 대해서도 서로 넘겨짚어 해석함으로써 오해가 쌓여갔는데, 부부상담에 나오

면서 상대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생겨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12살 연하의 아름다운 아내와 끝까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였으며 아내의 요리를 칭찬하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쇼핑을 지원하며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하였다. 아내는 갑상선 질환으로 신경이 예민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편에게 듣기 좋은 말을 건네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정성을 다해 남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집안을 아름답게 가꾸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남은 소원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며, 아내와의 여행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아내는 종종 우울감을 보일 때가 있지만 남편과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있으며, 본인의 가족, 친지, 이웃 등과의 네트워크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결상담 시 현재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아내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남편은 8~9점으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상대방을 고치려하지 않고 이대로 인정하고 살겠다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1***특수재물손괴/
2018버1***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8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3회, 자조모임 4회
부부상담 4회, 부부 부부집단상담 8회 등 총 37회 실시

상담기간

2018. 8. 29. ~ 2019. 3. 28.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6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녀 1남(16

세, 14세)이 있다. 맞벌이 부부로 남편은 비교적 조용한 성격인데 반하여 아내는 활발한 성격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2018년 5월 사건당일 아내가 외박을 하고 들어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30cm 과도를 이용하여 아내 소유의 가방을 찢어 손괴하였고, 아내는 책꽂이와 컴퓨터키보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부부 쌍방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남편은 아내가 인정할 만큼 청소, 요리, 세탁 등 집안일도 잘하는 편이지만, 아내는 가사에 소홀하고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그것이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와 비난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아내는 자녀와 가사에 신경 쓰라는 남편의 요청으로 상담 초기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독립성의 상실과 집안에만 있는 답답함, 등산 등 취미에 대해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남편은 아내가 등산, 음주 등을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빈도와 정도를 줄일 것을 요청하였고, 부부가 함께 취미활동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등 노력하였다. 아내는 음주 및 외출의 정도와 빈도를 줄이면서 부부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아내가 정리하기로 한 등산동호회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남편이 보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양가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며 부부는 이혼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아내가 이혼소송 취하를 남편에게 간청하였고, 일정한 사항에 합의한 후 남편이 소를 취하하였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상담 종결시 남편은 과거는 잊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아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에 기여하는 현재의 수준에 만족한다고 하였고, 아내도 지금의 상태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부부 모두 현재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계획이나 바람으로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더 잘해주기를 바랐으며, 많이 웃고 스킨십도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해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1***재물손괴/
2018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6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자조모임 5회
부부상담 4회, 부부집단상담 6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31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0. 4. ~ 2019. 5. 23.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15세, 13세)가 있다.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갈등 발생 시 상호 폭력을 행사했다. 말다툼, 욕설, 목조르기, 물건 던지기 등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부부는 번갈아가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2018년 6월 사건당일에도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은 휴대폰 거치대를 던져 싱크대 선반에 있는 컵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음 날, 전날의 다툼을 이야기하던 아내가 남편의 얼굴에 화장품을 던져 폭행을 하였고, 남편은 주먹으로 안방 문을 쳐 손잡이 부분이 부서지는 손괴를 하여 부부 모두 가정폭력행위자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본 사건 이후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지내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 및 자신이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실 등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자 남편은 아내에게 소 취하 등을 간절하게 청하였다. 아내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남편의 직장생활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상담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대안으로 별거를 시작하였다. 부부는 별거상태에서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부부문제의 해결을 찾

기로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에 임하였다.

별거상태에 있었으나 부부 모두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양쪽 집을 오가며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이 잦았고, 상담이 있는 날에도 먼저 만나 식사를 함께 하고 상담에 참여하였다. 부부 스스로 인정하듯 부부는 각각 개성이 강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달라서 일상생활의 많은 주제들을 둘러싸고 자주 말다툼이 일어났다. 부부집단상담 기간에도 작은 말다툼이 있었음을 거의 매주 보고하였는데, 그 때마다 아내는 다시 합치면 과거에 했던 부부싸움과 같은 형태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남편 역시 자신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맞출 수만은 없는데, 자신의 언행에 대해 아내가 과도하게 반응할 때면 미래가 두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상담에서의 과제들을 생각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말다툼이 일어나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려고 애썼으며 그것을 통해 순간적인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조금씩 축적하기 시작했다. 부부집단상담 마지막 회기에서 부부는 별거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상담 진행중인 2월 말 드디어 아내가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아직도 조금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다. 남편은 과거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3점으로 지금의 부부관계는 7~8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가장 큰 변화는 이전보다 대화가 잘되고 서로 노력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아내는 현재 부부관계가 완전한 변화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8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14회
피해자(딸) 전화상담 1회 등
총 15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0. 10. ~ 2019. 4. 9.

상담경과

행위자는 배송일에 종사하며 배우자와의 사이에 2녀가 있다. 본 건 피해자(큰 딸, 34세)는 결혼하여 배우자와의 사이에 1녀(3세)가 있으며 직장에 다닌다. 피해자와 작은 딸 모두 행위자의 집 가까이 살며 행위자 부부가 손주들을 돌보고 있다. 행위자는 화요일만 휴무여서 부득이 화요일에 개별상담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본 건이 발생한 2018년 6월 사건당일은 행위자의 생일이었다. 집에서 행위자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본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은 이웃이 신고하였고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과거에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또 술을 많이 마셔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수치감을 표출하였다. 본 사건 이후 음주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일주일에 3~4회 하던 음주 횟수를 1달에 1회 정도로 조절하고 있었다. 본소에 음주문제 상담프로그램이 있지만 행위자는 생업 상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행위자는 진지한 태도로 상담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상담내용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행위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심하고 있어 갈등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술을 조심할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하고, 평소 딸들과 친구 같은 아버지관계를 유지한

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행위자와 같이 진술하였고 행위자의 변화를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배우자와의 갈등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는데, 상담 중기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배우자가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5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화법이 순화되기를 바랐다. 둘째 아이를 낳은 후부터 부부가 각 방을 쓰고 있지만 서로 불만 없이 부부생활을 한다고 하였는데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스킨십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어 이를 지지하고 격려하였다.

사건번호 2018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2회, 집단상담 8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0. 19. ~ 2019. 4. 1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지 27년 되었고 부부사이에 두 딸(28세, 27세, 회사원)이 있다. 행위자는 인쇄업에 종사하였는데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전자조립일에 종사하는데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을 한다고 한다.

행위자는 2018년 6월 사건당일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뒤꿈치로 3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병과 받았고,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피해자는 2018년 11월경 두 딸과 함께 집을 나갔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행위자는 이혼할 의사가 없었다.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2회 연락을 취하였고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재판 진행 중 연락이 없던 작은 딸이 행위자에게 연락을 하여 부녀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부부 및 두 자녀가 함께 만난 적이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재결합을 조건으로 한다면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였는데 재결합을 하여도 다시 과거처럼 될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행위자는 재결합을 원했지만 막상 이혼을 정하고 법정을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술 문제, 그리고 피해자와 대화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을 꼽았다. 행위자의 바람대로 재결합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어 아쉽지만 행위자 역시 재결합하여 원만하게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현 시점에서는 이혼이 차선책으로 의미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잘 관리하며 절주, 금연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9**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1회, 집단상담 6회,
부부집단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4회,
음주문제상담 1회, 자조모임 4회,
부부집단상담 2회,
부부상담 2회, 부부 교육강좌 3회, 부부집단상담 2회 등
총 33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0. 23. ~ 2019. 4. 2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부부 모두 재혼이다. 행위자는 2018년 4월 사건당일 외도를 의심하며 노래방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먹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피해자도 행위자와 함께 상담을 받으라는 결정이 있었다.

초상담에서 피해자는 갈등원인으로 행위자의 음주문제, 불성실한 생활태도, 경제적 무책임 등이 있지만 가장 바라는 점으로 행위자의 음주문제 개선을 꼽았다. 상담 시작 몇 일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절주 약속을 하여 행위자와의 관계를 지속할 마음을 굳혔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일정에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상담 중기인 2019년 2월 초순경 피해자와 다투고 집을 나왔고 앞으로 혼자 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외롭지 않게 행위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행위자의 변화를 기대하였다.

부부에게 6회기 예정으로 매주 목요일 야간에 부부집단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부부관계를 개선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였다. 부부집단상담에서 피해자는 그동안 행위자의 외도와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하였다고 언성을 높이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관계회복을 원했다. 반면, 행위자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완고한 태도에 희망을 잃었고 4회기 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행위자는 종결 회기에서 자신은 헤어지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찾은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왔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강제성 없는 예방교육이 존재해서 문제 있는 가정들이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이혼율이

줄어들고 가정 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그리고 상담으로 자신의 언어와 생활습관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폭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앞으로 행위자를 보고 싶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혼자 생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므로 건강을 돌보면서 잘 지내겠다고 하였다.

사건번호 2018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4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20회 실시

상담기간

2018. 11. 5. ~ 2019. 5. 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1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10세)이 있고, 전혼 자녀 2남(19세, 17세)을 부부가 양육하고 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전혼자녀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2016년에 쌍방이 행위자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의 사건은 부부싸움 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남편이 아내의 뺨을 5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아내도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한 것이었다. 당시 부부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강하였고 특히 남편은 자신의 전혼자녀들을 잘 키워주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행위자는 위 상담위탁 보호처분 기간을 포함하

여 1년여 기간을 가계 종업원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심 끝에 행위자를 용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내내 갈등관계에 있었다. 2018년 6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잣말로 행위자에 욕설하는 것을 들은 행위자는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도 행위를 사랑하고 의지하였기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수시로 행위자의 외도 사실을 거론하며 다툼으로 이어졌다.

행위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오픈하였는데 특히 집단상담 성원들의 우호적인 태도와 진행자의 강의 등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향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사실을 거론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만해”라고 했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가 많이 화났구나, 더해도 된다”고 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와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행위자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지만 불쑥불쑥 화가 나는 때는 어찌지 못하고 행위자에게 퍼부어댄다고 하였다. 행위자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행위자가 외도를 하면 어찌나 불안하고 그 경우 자신이 혼자 살게 될 일도 걱정이라고 하였다. 행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㉓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1986년, 창립 30주년의 해 - 법률구조 사업의 확산 (2)

- 1984년 9월 교육원 개원
- 1985년 5월 상담소의 노래 (고은 작사, 김순애 작곡) 제정
- 1986년 2월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가정상담>을 월간으로 발행
- 4월 맞벌이 부부와 영세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개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1986년 10월 7일 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0년 세월의 성과를 돌이켜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상담소의 회원들뿐 아니라 각 사회단체 인사들, 보도진들까지 포함 6백여 명의 하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이태영 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을 간략히 밝히고 지난날의 역경을 회고한 뒤 앞으로 상담소가 추구해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 4백 63명, 회원 2천 3백 93명, 이사진 15명, 운영위원 25명, 직원 24명이 한 덩어리

가 되어 무에서 유의 역사를 창조했으며 황무지에서 법률구조의 신화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초창기는 쪽박으로 한강물을 푸는 일에 불과했던 이 사업이 이제는 성능 좋은 펌프를 들이대고 물을 퍼 올리듯 한강물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예 저 한강물에 댐을 쌓아 전국 방방곡곡에 에너지를 보내는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법률구조사업 30년의 의미

1986년 창립 30주년의 해를 ‘새로운 시작의 해’로 선언한 상담소는 당시 기념책자로 발간한 사진집 ‘번민하는 이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웃과 함께"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운동기관이다"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법률구조사업의 성격을 요약하였다.

“법률구조란 자선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운동’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적 권리 차원에서의 법률구조’와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법률구조’ 운동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스스로의 성격을 규정한 상담소는 30년 간 펼쳐온 법률구조사업을 돌아보며 새로운 출발의 전환에서 있었다. 창립 30주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새로운 출발

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말해서 상담소가 걸어온 지난 30년과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30년 사이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자리에 와 있었던 것이다.

편집부



△ 30주년 기념 강연회



△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 30주년 기념 전시회



△ 30주년 기념 회원대회



△ 30주년 기념 바자회



Q ▶▶▶

저는 30대의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성적 기질과 외관을 보이며 성장과정에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어 왔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러한 성정체성의 혼란이 더욱 커져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저의 고통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대에는 이러한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많은 방황을 하였고, 고민을 나눌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의사와 많은 상담을 거쳐 외과적 수술을 통해 남성에 맞는 신체적 외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일이 있으면 여자로 표기되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증상 성별표기를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고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름도 바꿀 수 있는지요?

A ▶▶▶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하려면 성전환증이 지속된 기간이나 성전환수술의 적정성,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 유무 등 의학적 기준과 함께 종전의 성에 의한 법률상 혼인관계 및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출생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신체의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반대의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춘 성전환자의 경우 등록부상의 성별 구분이 문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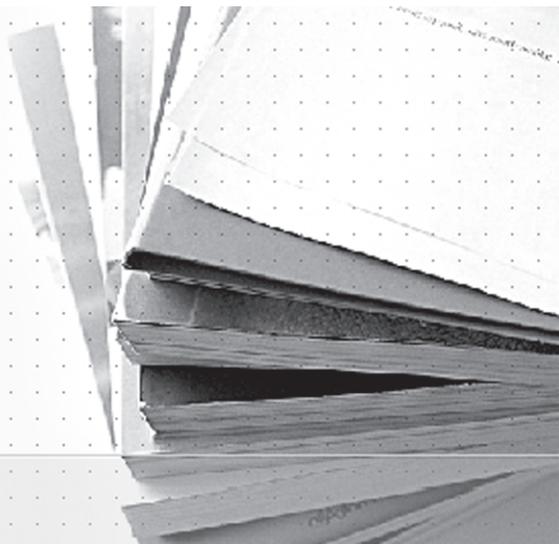
이에 대해 판례는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 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 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6.22. 선고 2004스42 결정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성전환자임이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 104조(종전 호적법 제 120조)에 의해 종래의 여성에서 남성으로 등록부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성전환자의 이름이 정정된 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명 역시 허가 될 수 있습니다.

복미영 상담위원

좋은 책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 아카 데미를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감동적인 수상소 감에서 자신이 스승으로 삼았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이다. ‘가장 개인적 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개 인’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아울러 ‘성급한 일반 화의 오류’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심리학의 하위분야로 진화심리학이 있다. 진 화심리학이란 진화론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회과학 이론들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사회화의 산물로 보는 경 향이 있지만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타고나는 것이며, 심리적 기제도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한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진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는 1 만 년 전인 석기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동일 하며 일례로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권력과 경 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여 러 여성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여성들은 자신 들의 외모를 가꾸면서 믿을 수 있는 한 남자와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 때의 베스트 셀러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대중적인 진화심 리학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자기계발서이다. 사 실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보아도 어 떤 내용일지 짐작이 간다. 이들은 남녀가 심리 적, 감정적, 성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세계에 살 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문제들은 서로의 세계

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한다. 남녀 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라면서 겪은 경험과 내 면에 축적된 성장의 역사 등은 진화심리학자들 이 주장하는 이론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와 같이 진화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남녀 에 관한 유해한 이분법을 비판한 책 『나는 과학 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는 진화심리학 자들이 이 시대에도 철저히 남성과 여성을 이 분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믿음을 일 반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공유하고 설득하려 애 쓴다고 비판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에 관 한 유해한 이분법을 해체하는 데 수십 년을 노 력하고 있는데 진화심리학자들은 터무니없고 유 치할 정도로 단순한 근거와 논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마리 루티는 대학교수이자 작가 로 현재는 토론토대학교 교수, 하버드대학교 여 성·젠더·섹슈얼리티 연구 프로그램 부소장으 로 재직중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진화심리학의 시대착오적 관계 패러다임의 문제점과, 젠더 관 계의 구질서를 비판하며 진화심리학이 개선해야 할 방향, 우리가 맹신하는 과학이 때로는 터무 니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흥미 있는 방향이었고 그 방향에 동의하지만 책 자체는 조금 주입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생각 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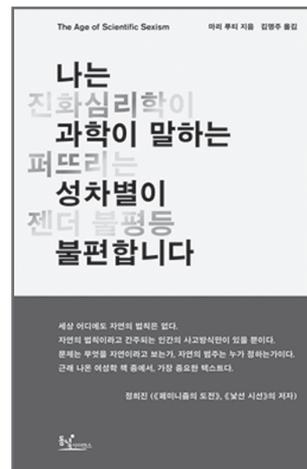
이숙현 편집부장

나는 과학이 말하는 성차별이 불편합니다

진화심리학이 퍼뜨리는 젠더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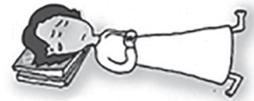
마리 루티 지음 김명주 옮김

동녘사이언스, 2018



결혼과 인생 (205)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92



글 | 그림 | 장차현실

너와 나의 거리



사람이 두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큰 시련이 우리를 깨우고 있다.

우리 모두 잘 견뎌낼거야!!!



임상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본소에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상실습을 한 동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임상실습 소감을 나누어 실는다.

강 유 리

동국대학교

연수활동을 하면서 일하기 전에는 그 전에 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실습하면서 낯설었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현장실습은 2번째로서 지난 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실습을 하면서 매우 새로웠습니다.

이혼, 친양자 입양 등 소송구조신청 사건에 대해 본인 진술서 작성 실습과 상담참관실습을 했습니다. 전화상담 안내 실습에서는 법률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밖에 도서관 실습에서는 가사 관련 판례 검색, 수집, 기사 스크랩, 도서 스캔 업무실습을 하였으며, 실습 기간 중 있었던 교원직무연수 교육의 진행보조를,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 관련 특강을 들으면서 많은 법률적 지식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이번 실습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알고 준비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걸 알게 되어 앞으로도 법학전공과 관련하여 열심히 공부하고자 합니다.

김 민 재

동국대학교

2019년 1학기 여름방학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그때의 좋은 경험과 배움이 있었기에 2학기 겨울방학에도 현장실습도 신청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실습이 처음인 학생들에 비해 여름에 실습했던 경험으로 업무들이 익숙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업무실습 경험 덕분에 함께 실습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 중에 전화상담 안내에서 전화를 하신 내담자 분들의 다양한 사건들(이혼, 재산 분할, 가정폭력, 상속, 면접 교섭, 양육비 등등)을 접하며, 상담소에서 출판한 가정법률사례집 '어떻게 할까요'를 참고하면서 가족법 관련 공부를 많이 하였고, 내담자 분들께 친절하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상담소의 여러 업무(상담 참관, 자료 정리, 사진 자료 스캔 등등)들을 실습하면서 정보수집, 자료 처리 능력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내담자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시니 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말이 바뀌는 건 다반사고, 회를 내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

재판제도가 3심제인 것조차 모르시는 분,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해 무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가정폭력, 상속, 재산 분할 등 가정문제와 관계된 전화를 많이 받다보니 아무래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릴 때나, 꾸리고 나서 모두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느꼈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가족 간에 대화로 잘 풀어야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인 가족법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백인 변호사단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홍진호

동국대학교

학교에서 이론 공부를 하면서 실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해 보고 싶어 현장실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개인에 대한 법률구조, 법률서비스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혼에 관한 절차 및 필요서류,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방법, 절차 등 가사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 파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산,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현장실습은 단순한 실습, 자원봉사가 아니라, 법률 절차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사항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귀중한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전화 상담 안내를 실습하면서 내담자분들이 주로 어떤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공부하면서 법률구조의 중요성을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학교에서의 이론 공부를 할 때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미래에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재

동국대학교

저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부생으로서 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을 위주로 수강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민법 제4편과 제5편에 해당하는 친족 및 상속편을 수강하지 않은 채로 4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겨울방학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학교에서 겨울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망설임 없이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저에게 법률구조기관에서의 실습은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론만 배우는 학교강의와 달리 상담소에서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상담소에 지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은 한 달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파산·면책 신청 의뢰서, 특별 한정승인 청구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재판상 이혼 소

장 등과 같은 소송서류의 작성을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들이라 실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생님들의 지도 하에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수십 건의 전화상담 안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고, 법률적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하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은 저로 하여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가장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경험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 가정법원에 상담참관을 하러 갔을 때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허겁지겁 상담하는 방으로 들어오셨고, 말씀을 들어보니 아들을 먼저 하늘에 보낸 뒤, 얼마 되지 않는 아들 명의의 예금을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그게 단순 승인으로 되어 할머니 앞으로 아들명의로 채무독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할머니를 모시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함께 가서 상속재산조회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떨리셨는지 신청서에 글씨를 쓰는 것조차 힘들어하셨고, 저는 떨리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안심시켜드리며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일이 일단락되자, 그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 반복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악의의 유기 등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서울가정법원 내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실에 오셨는데,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과 이혼소장 작성이 매우 급하며 거의 올 듯이 부탁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저는 제가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분과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이혼소장 작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완성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법원으로 떠나시는 그분의 얼굴에서 상담실을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너무나 밝아진 표정이 정말 좋아보여서 저까지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꼭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도와야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상담소 실습 첫날 참석한 전체 회의시간에 인사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끝나고 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소한 업무부터 어려운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비록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을 마치고 떠나게 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현장실습 학부생이 아닌 어엿한 법조인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하나하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상담소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 지 민

동국대학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전화 상담안내, 법률구조 실무 연수를 통해 모든 일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법률구조업무 실습의 경우 법률구조신청에서 구조결정 그리고 소송구조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어 결과 보고서 정리까지의 일련의 일들을 실습하면서 법률구조업무의 체계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원봉사 변호사에게 의뢰했던 소송구조 사건들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 판결문과 결과 보고서와 소송 관련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읽으며 사건번호가 같은 것들끼리 분류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많은 구조 사건 수만큼 이혼, 가정폭력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많았다. 소송구조사건들의 판결문과 여러 자료를 보고승소, 기각 등으로 결과를 소송구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하나씩 배웠고, 판결문 내용도 직접 읽으면서 판결의 흐름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법률구조업무를 실습하면서 법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까지 치유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변호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의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바꾸는 것에 앞장서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과정은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한, 다양한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는 여러 친구, 선배들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했기에 즐거웠다. 비록 아침 잠이 무척 많은 나에게서는 출근 시간을 맞추는 것이 힘들었고, 배워야 할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겨날 때면 흥미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벅차기도 했지만 2달 간의 실습을 마무리하며 부지런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부딪치며 더 성장해있는 내가 뿌듯하기만 했다. 어쩌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을 하며 힘들었던 것들은 성장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모른다.

이번 가정법률상담소 실습을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은 더 확고해졌고, 구체화되었다. 사실 어떠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고민은 아직까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백인 변호사단에 들어와 이곳에서 매주 한 번씩이라도 상담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곳의 선생님들 역시 이로 인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실습생인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다는 생각에 업무를 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마다 행복감과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다양한 일을 경험을 했고,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이자 많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열심히 임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월요일 야간상담에서의 상담 참관이었다. 상담 봉사를 오신 변호사님과 내담자가 상담하는 것을 참관하면서 변호사

의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담자는 상담을 받으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에 귀기울이고, 신뢰하며, 마음을 여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의뢰인의 마음까지 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 영 지

동국대학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실습을 처음 나가면서 가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상담소에 폐가될까봐 매우 걱정이 많았다. 전화상담 안내를 하면서 혹시나 실수를 할 까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 '알기쉬운 가족법상식' 과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를 틈틈이 보며 공부를 했다. 간단한 서류 안내에도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에게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정보일 수 있지만 법률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법은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알게 되어 법률구조기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가족법에 대한 상식도 많이 알게 되었고, 소송구조 절차 및 소장, 파산면책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등에 대해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 법률구조실습을 통해 법률을 통해 나의 지식이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다. 이번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여 서 현

동국대학교
.....

초등학생 때부터 법조인이 꿈이었던 나는 법학과에 진학하여 다양한 법학과목을 이수하였다. 또한,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여러 기관들에게 활동을 했었는데, 가족법에 대해서는 전공 수업이나 따로 활동들을 해보지 않

아서 가족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현장실습을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한 달 동안 현장실습을 하면서 가족법에 관해 많이 배웠으며, 실무에 적용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혼의 종류, 절차, 서류 등 상속, 친권양육 등 가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전화를 받기가 무서웠는데,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참여와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등을 공부하면서 많은 가족법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작성하는 형식과 자료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은 교원직무연수로, 곽배희 소장님을 비롯하여 상담위원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족법의 변천사부터 가정폭력특례법 활용 사례까지 가족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세밀한 부분들까지 배울 수 있었다. 도서실 업무 시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집을 정리하면서 친생부인의 소의 변천사, 상속재산분할 참칭상속인의 재산침해 등과 같은 내용들이 인상 깊었다. 한 달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배웠던 내용들,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사례들의 해결방법을 토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다. 무엇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하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일하게 되어 상담위원님들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교원직무연수, 전화상담 안내, 상담참관, 다양한 업무 등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간단한 법률적 자문 등을 해줄 수 있어 정말 뿌듯하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자원봉사자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운영, 강종협, 김수경, 김지원, 김태주, 박다혜, 박수열, 이현정, 장세호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진아, 방선영, 이승주, 황미옥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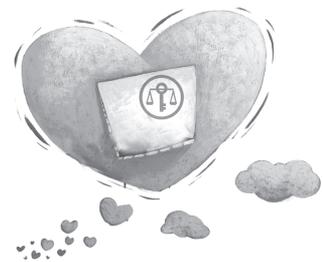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나현수, 남은결, 박연경, 박준영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박미라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상담소, 코로나 19사태로 면접상담 임시 중지
가정법원 휴정 및 관할구청 권고 따라**

전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 상담소도 불특정다수의 내담자들이 상담소를 찾는 현실에 더 이상 면접상담을 계속하는 것이 상담소 직원들은 물론 내담자들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담소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면접상담의 임시 중지를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된 서울가정법원의 출장상담 임시 중지 및 재판 연기와 휴정에 맞춘 것으로 상담소의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의 권고도 있어 2월 26일부터 면접상담을 임시 중지하고 3월 20일까지 전화 및 인터넷 상담에 집중하며 사태의 추이를 보며 법원 및 사회 전반의 움직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2020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곽배희 소장, 만장일치로 연임의결**

본소의 2020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0일 열렸다.

차명희 이사장, 김춘봉, 박양덕, 김의재, 곽배희, 조대연, 김명순, 김병후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의 개회, 전회 회의록 요약 보고, 감사보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어 소장선출과 관련하여 만장일치로 곽배희 소장의 연임을 의결했으며, 한미영·최문원 감사에 대해서도 2년 임기의 유임을 의결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총회 날짜 등을 결정했다. (관련사진 2면)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동국대 법학과 현장실습 1.2.-1.31
김지민, 유재혁, 이영지, 최지은

●이대 현장실습 1.2.- 2.28.
강명희(행정학과), 김하유(심리학과), 조은송(사회학과), 황인경(국제사무학과)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 2.5.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상담센터
- 북미영 상담위원
- 2.5. 강서지역자활센터-가족법및신용회복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월 6일 서울가정법원 배철식 민원실장을 방문하여 본소의 가정법원 출장상담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곽배희 소장, 홍성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신임 본부장 등과 환담

곽배희 소장은 2월 4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홍

성진 신임 본부장 및 한명애 부장, 박은혜 주임의 방문을 받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협약식 추진 및 본소가 지원하고 있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변경, 입양 등 법률구조의 업무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최수진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가 배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2020년 2월 상담통계

총상담 4,688				
법률상담 (4,371)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786	3,482	100	2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190		76	51	

* 인터넷 정보 이용 42,660건

2020년 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68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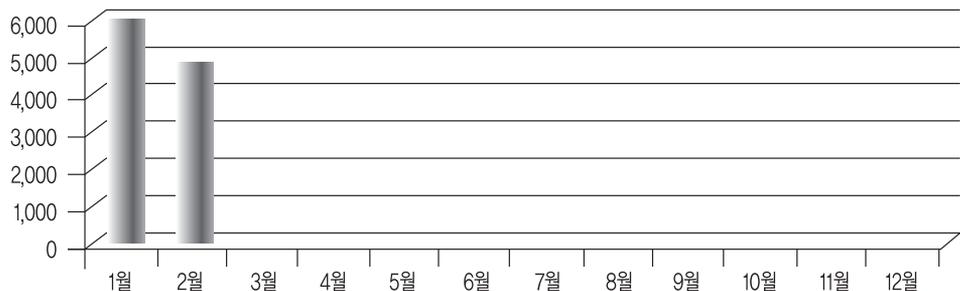
4,371건(93.2%), 화해조정 190건(4.1%), 소장 등 서류작성 76건(1.6%), 소송구조 51건(1.1%)이었다.

법률상담 4,37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3.4%→4.3%), 이혼(22.9%→24.6%), 사실혼 해소(1.1%→1.3%), 친권·양육권(5.4%→5.8%), 양육비(7.9%→8.0%), 면접교섭권(2.7%→3.0%), 인지(0.9%→1.1%), 친생자존부(2.3%→2.5%), 이혼무효·취소(0.2%→0.3%), 미성

년후견(0.5%→0.7%), 가사기타(4.9%→6.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0.1%→0.2%), 민사기타(0.5%→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37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786건(18.0%), 전화상담 3,482건(79.7%), 인터넷상담 100건(2.3%), 순회상담 2건(0.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0년
월별
총 건수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가출하여 연락두절 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8

담당 : 정경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24세)와 피고(남, 24세)는 2016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남, 4세, 3세)을 두고 있다. 2017년 2월경 피고는 일을 간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한 달 가량 피고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피고를 찾을 길이 없었다. 2017년 3월 가출 신고도 접수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껴, 현재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시설에 입소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2019. 11. 1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아내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구속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면접교섭 배제 판결

법률구조 2019-80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2세)와 피고(남, 41세)는 2006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남 13세, 2세, 여 12세, 11세, 4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이유 없이 원고를 상습 폭행하고 사건본인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는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구해오라고 강요하였다. 원고의 연이은 출산으로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해 사건본인들이 굶고 있을 때에도 피고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2019년 1월경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피고의 말을 무시한다며 사건본인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어 사건본인들의 머리를 때리고, 당시 두 돌밖에 되지 않은 막내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또한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반복한 후 원고의 목을 졸랐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19. 9.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회피한 모에 대하여
감치 결정**

법률구조 2019-216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감치재판

내용 : 청구인(남, 45세)과 상대방(여, 47세)은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6세, 15세)을 두었으나 2013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건본인들의 매달 학원비 140만 원 이외에도 보험료, 학교급식비 등의 부수적인 지출이 상당하며 노모까지 부양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환경미화원 일이 끝난 이후에도 배달대행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 전까지 연락조차 없었다. 청구인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11. 27.)

의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감치 20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구치소로 정한다.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채무로 딸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34

담당 : 이진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1세)와 피고(남, 58세)는 1993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 피고는 폭행 후에도 사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원고는 현재까지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무를 발생시켰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후 1998년경 아파트를 팔아 마트를 차렸으나 장사에 관심이 없었고,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2002년경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정식당을 개업하였으나 6개월 만에 큰 손해를 남기고 폐업하였다. 이후 피고는 일을 하지 않았고 2015년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다 2019년 7월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며 합의금 마련을 요청했다. 원고는 현재도 피고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2020. 1. 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9-397

담당 : 안준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1세)와 피고(남, 62세)는 2010년 12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매일 술을 마셨고 2014년경 알코올 중독으로 해고를 당한 후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같은 해 원고의 권유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치료를 거부했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원고를 폭행하고, 식당 집기를 집어던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

나라 2019년 7월경 피고가 원고의 성경책에 부엌칼을 꽂아 놓고 식당 테이블을 곡괭이로 찍어 놓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에게 알코올전문 병원 입원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는 열흘 만에 퇴원하여 원고를 찾아다니며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19. 12.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기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407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6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13살부터 공장에서 일하였다. 부모님과 형의 건강이 좋지 않아 어린나이부터 소년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했던 신청인은 성인이 된 후 대출을 받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IMF사태로 계속된 적자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던 신청인은 2009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허가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2010년경 신청인은 지인의 권유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지인은 초기사업자금이 필요하며 저축은행 직원과 서류를 만들어 신청인 명의의 법인 앞으로 1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결국 신청인은 채무만 지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짬짬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평균 1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신청인은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고심하던 끝에 다시 한 번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 위해 상담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0. 01.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미지급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급여압류 결정**

법률구조 2019-481

담당 : 최원호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5세)와 채무자(남, 46세)는 1998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20세, 18세)을 두고 살다가, 2016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사건본인 1인당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채권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채무자가 다시 직장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2. 31.)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